

불자 세상보기



최용준 교수불자연합회 회장

연일 보도되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기사를 보면 걱정을 넘어 불안해진다.

젊은이들은 마치 전쟁에서 적군을 쓰러뜨리기 위해 돌격하는 인상을 주고 정치지도자는 수년전에는 잘 몰라서 긍정적으로 찬성발언을 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라고 하며 이것을 체결하는 것은 국가를 파는 행위라고 맹공한다.

여시절에는 잘 몰라서 찬성하고 지지했지만, 아가되니 많이 알게되어 반대한다는 논지이니 아연해진다.

근 20년전, 1983년 11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31차 총회에서 새로운 무역협상의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 논의는 1986년 9월 이른바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이름으로 개명되었고,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2월 통상교섭본부가 탄생되었다. 2011년 11월에 뉴라운드 협상을 선언하고 2005년 1월 서비스시장 및 쌀시장 등 개방이 포함된 이른바 도하개발 아젠다, 뉴라운드가 발표되었다.

뉴라운드의 목표는 더 자유로운 교역이다 모든 분야에서 관세를 더 낮추고 규제를 풀어 자유무역을 통한 지구촌 경제의 번영을 이루자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우리공산품이 수출돼 외화수입이 되고 값싸고 품질 좋은 외국물품이 수입되니 소비자에게 유리하고, 소비자의 생활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반면에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특정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과 격차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폐쇄시장경제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요즈음 쟁점이 되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Investor State Dispute)는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이는 국제적 추세이다. 오히려 이 규정들은 해외에 투자, 수출하는 우리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자국의 법적특성 때문에 이러한 규정들

이 필요 없는 나라들이 있다. 그 대표적 국가가 미국이다. 미국은 개인, 기업, 국가 간 서로의 소송권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법적체계가 다르다. 우리는 미국하고만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싱가포르, 인도, 칠레, 페루, EU, 아세안 등과 체결했다. 만일 이러한 규정들을 부정한다면, 국제거래에서 자칫 큰 손해를 받을 수 있다.

기체결한 해외주요국들과의 특정 수출 품목은 많이 증가된 것으로 무역협회자료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휴대폰, MP3플레이어, TV, LCD모니터, 자동차, 유조선, 타이어 등은 국내소비량을 훨씬 넘어 수출되었다. 해외에 우리제품만을 팔려고 하고, 그들 국가의 제품을 거절한다면 우리나라와 무역하려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체결을 반대하는 견해를 보면 농축산업 주요품목 일정기간 관세철폐유예, 중소상업 보호장치 확보,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안 전성확보, 금융세이프가드실효성강화 및 국내보완대책으로 무역조정지원제도 강화 등이다. 그리고 농어민의 수입 감소를 드는데 농수산품의 수출금액은 전체 수출 금액 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으며 공

산품의 판매이익의 일부금액으로 격감된 수입원을 충당하도록 제도화하고 국내 소비에서는 신도발이 정선에 의해 외국산보다 고가로 판매되고 그 소비량은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지역이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농약을 사용할 수 없어 인증된 농산품의 수확량 감소로 인한 손해를 지원해 주고 있다. 기타 문제는 운영하면서 보완되리라 본다.

선인선과 악인악과는 경영행위에도 반드시 적용된다.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경영은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위정자는 소속정당과 본인의 목적달성 그리고 이익의 극대화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지척 그 정당이나, 국가, 국민 모두가 피해를 질 수 있다. 위정자가 이타행을 배우고 실천한다면 그 정당은 오히려 경쟁력을 갖추고 영원히 존속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의 경음을 배우고 익혀 국제협상 지혜를 키워야 한다. 여야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중지를 결집해 오직 국익을 위해 노력할 때 성장 가속도가 붙고, 국민소득 4만불 달성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체결을 고대하며

社說 돈으로부터 자유로와야 自主

목동 국제선센터가 11월 15일 개원 1주년을 맞는다. 템플스테이와 한국불교문화재단이 위한 국제선센터는 법당도 갖추고 예불도 하는 도량이다. 주지 현조 스님은 “아직도 많은 지역민들이 ‘국제선센터가 절이냐? 법당은 있느냐?’며 묻는다. 명칭 때문에 지역 포교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때문에 스님은 총무원 총무회의에서 국제선센터의 명칭을 ‘국제선센터 00사’로 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결과는 부결됐다. ‘국제선센터’ 명칭을 유지해야 간혹 선을 세계화시킬 수 있다는 명분에서였다.

국제선센터는 국교를 지원받아 문화상품인 템플스테이에 활용하기 위해 설립한 시설이다. 조계종의 수행법인 간화선 효포를 위해 중단이 설립한 포교당이 아니라는 말이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회의에 참여하는 인사라면 중단을 좌지우지하는 핵심 인사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나랏돈을 어느 시주금처럼 여기며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것은 대단히 큰일이 아닐 수 없다.

2012년 있을 대선·총선 때문인지 문화체육관광부 중무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115.1% 증가했다. 나랏돈 씹음이 커지니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에서 제동을 걸었다. 문방위는 “특정교리 전파 및 교세 확장 등의 목적이 아닌 순수한 문화·복지사업 및 종교간 화합을 위한 사업에 한정·집행해야 한다”며 “특정 종교 내에 한정되는 행사 등에 대한 지원은 지양해 달라”고 요구했다.

내년 여수에서 열릴 세계불교대우회(WFB) 한국행사, ‘성철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 ‘사찰방재시스템 구축까지 불교계 큰 행사·사업치고 어느 것 하나 문방위 지적에서 자유로운 것이 없었다.

문방위는 국교가 지원돼 사용 중인 중요문화시설에 대해 “일부 시설의 경우 대부분의 공간이 해당 종교단체의 사무실로 이용되는 등 중요문화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도 지적했다. 190억원의 국고지원을 받아 세우고도 조계종 총무원 청사로 사용 중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이 그 예이다.

불교, 개신교를 떠나 특정종교인만이 참여하는 행사나 이용하는 시설의 건립에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다. 선거를 앞둔 이 때, 지원 받는 종교단체의 세력을 정치적 지지세력으로 만들려는 불순한 의도로도 보인다.

그동안 특정종교단체에 대한 국고 지원은 통치성 자금 형태로 관행적으로 지원된 경우가 많았다. 이제 이런 잘못된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

종교계부터 호교 차원의 사업 등에 국고지원을 바라서는 안된다. 정부·여당의 저급한 전문문화 인식을 비판하며 국고지원을 거부했던 그 마음이 순간의 분신(忿心)이 아닌 평상심으로 여여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정부 역시 종교단체간 형평성 운운하며 혈세를 물 쓰듯 해서 안된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급해야 나라경제가, 종교계가 건강해진다.

종교계는 정신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공동체이다. 하물며, 돈 몇 푼에 울고 웃고 해서야 되겠는가. 불교사회연구소의 대국민 조사 발표에서 드러났듯이, 많은 불자들은 자신과 세인의 5대결사에 무관심하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흥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어느 중무위원을 보듯 조계종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조고각하(照顧脚下) 할 필요가 있다.

남의 돈을 쓸수록 빛이 되지만 대중의 마음은 모을수록 힘이 된다.

사부대중 칼럼



옥복연 종교와 현대연구소 소장

최근 여성들의 결혼과 임신, 출산과업 등은 우리사회의 저출산현상과 맞물리면서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여성할당제, 남성육아휴직제 등 성평등정책을 추진하고, 서울시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로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심각성이 전해온다.

이제 우리 사회는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능력있는 사람이 책임있는 자리에서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기며, 여성의 능력을 활용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문제가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되고 있다.

하지만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여성이 차별받고, 여성이 책임 있는 자리에서 일하기 힘든 곳이 있으니, 그것이 오늘날의 조계종단이다.

지난 2011년 9월 조계종 중앙총회 임시

“감히 비구니가 비구를 비판하다니...”

회에서의 총법 재계정안에 의하면, 우리 사회의 헌법재판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법규위원의 자격은 “법에 밝은 비구”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에 총회의원인 현근 스님은 “현재 비구, 비구니 숫자가 반반이며,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도 여성이 하는 세상이다. 전문성을 가진 비구도 많은 현실에서 법규위원의 자격을 비구로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다. 비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문제제기를 하셨다. 하지만 “출법에 비구니는 비구를 비판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구니가 법규위원이 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며 의장스님은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다.

법규위원 뿐만 아니라 중앙심사위원이나 초·재심 회계위원도 ‘비구’만 할 수 있었다. 아무리 비구도 법리에 밝더라도 비구니는 안되며, 비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비구니는 비구를 절대로 비판하거나 벌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현행총법에 의하면 총회의원 총 81명 가운데 비구니스님은 10명으로 제한되며, 본사 주지는 물론 교육위원장, 포교위원장, 회계위원장, 총무원장도 비구니스님이 할 수 없다. 만약 우리사회에서 총리, 교육부장관, 문공부장관, 법무부장관 등은 반

드시 ‘남자여야만’ 한다며, 여자는 남자를 비판하거나 심판할 수 없기 때문에 판사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통합종단 조계종의 설립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비구니스님들은 결코 여성이라서 소극적으로 몰라나있지 않았고, 열정적으로 평화불사에 동참하셨다. 현재 중단 소속 승려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구니스님들은 교육과 포교, 복지의 현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계신다.

비구니스님의 높은 교육 수준과 그 능력은 중단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행력’이나 ‘능력’이 아닌 ‘신체적인 차이’를 강조하며 그 역할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여성불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법당의 가운데 자리에 ‘거사석’을 준비해서 남성신도만 앉게 한다거나, 여성보살은 공양간이나 법당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하지만 남성신도들은 사찰신도회에서 예산을 써서나 운영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다. 즉 남성신도는 지도자적 역할을, 여성신도는 봉사하는 역할이라는 남녀차별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이 각 사찰에서도 나타난다.

2500여 년 전, 여성은 마치 집안의 재산 처럼 처분되던 가부장적 인드사회에서 여성도 성불할 수 있음을 설하시고, 비구니교단을 설립하신 부다는 오늘날의 기준에서도 참으로 위대한 남녀평등주의자였다. 조계종단은 이러한 부처님을 본받아 사회법보다 높은 가치기준과 잣대로 사회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하지만 사회법보다 한참 수준 낮은 남녀차별적인 중원중법으로 조계종단은 문화지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중단 운영에서부터 각 사찰에 이르기까지 남자라서, 혹은 여자라서 하는 남녀차별적 사고방식은 비구수 중심의 신가스트제도를 공고화할 뿐이다. 위계의 가장 높은 곳에 비구스님, 그 아래에는 비구니스님, 또 그 아래에는 남성신도가,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는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여성신도가 있는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조계종단. 이처럼 시대에 뒤떨어진 중법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어떻게 포교를 할 것인가?

부처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몸을 받아 태어난 것들에는 각기 구별이 있지만 인간 사이에서는 그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 사이에서 구별이 나타나는 것은 오직 그 명칭에 의한 것뿐이다.” <숫타니파타 중에서>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www.hyunbul.com
www.hyunbulnews.com
www.buddhapia.com
www.hyunbulshop.com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사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천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관리규정 및 그 실행 요강을 준수한다

21c 자평 명리학의 신화... 화제의 신간 사주풀이의 법수
자평진전의 위상
자평진전은 적천수와 더불어 명리학의 양대 축을 이루는 고전이다.
사주의 격국
사주격국은 어느 한 사주의 분수(分數)와 지향점을 뜻한다.
자평진전 전문서점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자평진전을 전문서점, 인터넷서점에서 지금바로 만나세요.
www.gubook.co.kr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안내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의 모색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4. 팔계의 상징에 대한 설명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벽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9. 팔계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조상님의 산소자리가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화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5. 산소(土)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